

# 5·18 구묘지·옛 적십자병원, 국가 보존·활용 길 열렸다

사적지 지정 28년만에 첫 국가예산 확보  
2028년까지 민주공원 조성...전액 국비  
옛 적십자병원 설계비 4억원 국비 반영

5·18민주화운동의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지'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으로 보존·활용 사업비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7억1천300만원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 설계비' 4억4천500만원이 반영됐다.

'5·18 구묘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매장된 곳으로 진상 규명 투쟁의 발원지로 꼽힌다.

전두환 정권의 묘지 폐쇄 시도에도 시민 참여로 지켜낸 대표적 5·18사적지다. 이후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족민주열사가 안장되며 5·18 정



5·18민주화운동의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지'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으로 보존·활용 사업비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사진 왼쪽부터 5·18 구묘지와 옛 광주적십자병원.

신 계승의 상징적 공간이 됐다.

광주시는 이곳을 '빛의 혁명 발원지'이자 'K-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단체 대표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현재 5·18 민주공원 내 역사관 콘텐츠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또 다른 5·18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를



세대와 시민이 함께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누고 부상자를 치료한 생명 나눔의 역사적 현장이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지로 알려져 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은 국비 50% 지원으로 건물 외관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내부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와 시민이 함께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는 2027년까지 완료하고 2028년까지 건물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공간 활용 방안은 전문가 전담팀과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24년 10차례, 2025년 15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를 지속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 활동에 힘입어 2개 사적지 모두 국가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옛 광주교도소, 국군광주병원, 505보안부대 등 주요 사적지에 대한 종합적 보존·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적 가치 재조명에 본격 나선다는 복안이다.

강기정 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국정과정 1호로 선정되고 5·18사적지가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남기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 농업 AX 혁신 플랫폼 구축 박차 전남 '첨단 농산업 중심지' 도약

비즈니스·실증·생육지원 데이터센터  
정부예산 1천150억대 3대 사업 반영

전남도가 국가 농업 AX(AI전환) 혁신 플랫폼 연계 핵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사업 관련 사업비가 2026년 정부예산에 대폭 반영·증액되면서 미래형 농산업 구조 전환 전기를 마련했다.

반영된 사업은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총사업비 450억원),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총사업비 400억원),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총사업비 300억원) 등 총 1천150억원 규모다. 모두 무안군 일원에 구축될 예정이다.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스마트농기계·드론·자율주행 장비·스마트팜 기자재 등 첨단 농업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이다.

전사·홍보관, 수출상담실, 기업 지원 사무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다목적 비즈니스 거점으로 국내 농업기술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도가 지속 견인한 핵심 사업이다.

새롭게 반영된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은 스

마트 농기계, AI 솔루션, 자동화 장비 등 다양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실제 농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시연할 실증형 기반시설이다.

특히 전남에서 매년 개최되는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의 기술 검증과 국제화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는 작물 생육 이미지, 성장 패턴, 환경데이터 등 정밀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구축하는 전문 분석시설이다.

국내 농업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표준 생육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품종 평가·육종 지원·스마트농업 장비 개발 등 연구개발(R&D)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는 AX 플랫폼 3대 사업이 구축되면 AI 스마트팜 기술 실증 데이터 분석 수출지원까지 이어지는 전남형 농산업 혁신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규 식량유통과장은 "AX 플랫폼 관련 예산 증액은 전남 농업이 첨단 농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농업인과 기업이 체감할 기술 혁신과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목포 신한비치호텔에서 열린 '해상풍력사업 국민 100조 펀드 도약 심포지엄'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해상풍력 국민 100조 펀드' 방안 모색

전남도·신안군, 심포지엄서 제도화 논의

전남도와 신안군은 9일 목포 신한비치호텔에서 '해상풍력 국민 100조 펀드 도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남도·신안군 주최로 열린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정순남 신안발전사협의체 위원장 등 해상풍력 관련 주요 인사와 협의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선 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산업실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해상풍력 국민펀드 제도화와 법률 기반 구축, 국민펀드와 해상풍력 산업 연계 전략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 해상풍력 발전 하기의 62%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은 올해 4월 아시아 태평양 최대인 32GW 규모의 신한 해상풍력집적화 단지가 지정되고, 5월부터는 96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전국 해상풍력 사업 최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상생을 위한 바람연금 확대가 반영되고 올해 6월 전남 22개 시·군과 NH농협은행 전남본부, 발전사 등과 전남 도민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하는 등 해상풍력 펀드 조성을 위한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도민펀드 조성도 전남에서 먼저 추진하고 성과를 만들어 국민이 참여·투자하는 전국 단위에너지 주권형 경제모델로 확대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전문 이장
✓ 가족구성 가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